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대학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 교육목적 기독교적 인성과 세계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NO.393 2022. 12. 2.(금)

발행인 김상식 주간 김희선 간사 방미향 편집장 이서연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243 https://www.sungkyul.ac.kr



7 사회
노동자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요?



10 기획
김장철 특집!
김치에
숨겨진 과학은?



11 교양
대구,
네가 가지고 있는
추억을 얘기해줘!



12 문화
평화는
편견을 깨고
나온다

2022 비교과 FESTA 성황리에 끝내



11월 16일(수) 10시부터 17시까지 학술정보관 1층과 XR 강의실에서 진행된 2022 비교과 FESTA가 성황리에 마쳤다. 해당 행사는 교육혁신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비교

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우가 타 학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많

은 학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1번 운영 부스에 방문해서 명하면 입장이 가능하며 최대 10개의 부스에 참여할 수 있다. 또, 13시부터는 약 1시

간 가량 <성바시: 성결대를 바꾸는 시간 10분>이라는 주제로 비교과 성과공유회가 진행됐다. 이는 비교과 참여 학생 우수사례 발표회로 학생들이 주도해 만든 성과공유회였다. 2022 비교과 FESTA에 참여한 김보경(동아 21) 학우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평소 관심이 많아 서포터즈와 모니터링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비교과 FESTA는 특별했습니다. 부스 방문자분들께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방문자분들이 비교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교과 FESTA 존재의 의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라며 참여 후기를 밝혔다.

글/사진 - 박미경 기자
qkralud0827@sungkyul.ac.kr

10.29 참사 추모식 진행



본교 학생회와 학생지원과가 지난 11월 2일(수) 10.29 참사 추모식을 진행했다. 추모식은 조민주 총학생회장의 주도로 묵념을 하면서 시작됐다. 본교 학생회 및 학우들이 참여해 추모의 의사를 내비쳤으며 국화와 메모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

본교 학생회관 1층에는 희생자들을 추모

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많은 학우가 저마다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학보사 일동 또한 본 글을 통해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했다.

글/사진 - 이서연 편집장 tjidus1596@sungkyul.ac.kr

<2023 총선거 & 제38대 正:진 총학생회장 인터뷰>

총학생회 및 단체 학생회	입후보자	투표율	당낙여부
총학생회	정: 박주혁 부: 강정흠	48.98%	낙선(미개표)
글로벌경영기술대학	정: 박현우 부: 원동현	46.88%	낙선(미개표)
IT공과대학	정: 이영준 부: 이윤채	42.06%	낙선(미개표)
예술대학	정: 이지혜 부: 당현민	53.61%	당선
인문대학	정: 이규상 부: 김준모	51.51%	당선
신학대학	정: 백세운 부: 엄요한	56.01%	당선
사범대학	정: 박준호 부: 이다송	67.19%	당선

2023 총선거 개표 및 당선 결과가 발표됐다. 총학생회는 48.98%라는 아쉬운 투표율로 낙선됐으며 글로벌경영기술대학, IT공과대학 또한 미개표로 낙선됐다. 예술대학과 인문대학, 신학대학, 사범대학은 50%의 투표율을 넘어 당선됐으며 사회과학대학은 입후보하지 않았다. 이번 393호의 4-5면을 통해 단대별 구체적 공약과 제38대 正:진 조민주 총학생회장 인터뷰를 살펴보자.

『예수의 재림』, 『구약대지』 기증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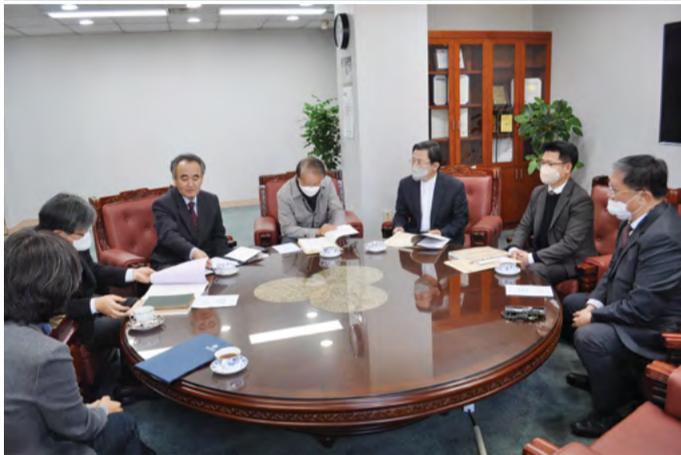
지난 11월 17일(목) 본교 총장실에서 『예수의 재림(Jesus Is Coming)』, 『구약대지(舊約大旨)』 기증식이 진행됐다. 기증 명단으로는 박광일, 박철수, 권순달, 장윤석, 임흥근 목사와 이광진 장로였다.

본교는 『예수의 재림』과 『구약대지』를 기증한 '우리는 성결인, 한국성결교회 고서 찾기 모금회'와 주의양성결교회 임흥근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한 후 학술정보관 1층 U-라운지에 전시했다.

『예수의 재림』은 블랙스톤(W. E. Blackstone)의 저서로, 출판된 지 불과 5년 만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게일(J. S. Gale)이 한국어로 완역해 출간한 책이다. 본문만 무려 267쪽으로 출판해 신학 자료로서 큰 가치를 보이는데, 특히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게일이 번역해 더욱 그 의미를 지닌다. 임흥근 목사는 이를 알리고 본문 판독의 용이성을 위해 직접 타이핑한 원문 자료도 함께 기증했다.

『구약대지』는 한국 기독교 초기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료로, 1918년에 초판본이 발행됐으며 기증된 도서는 1921년 재판본이다. 두 자료 모두 본교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본교 제공



연극영화학부 시위 진행



연극영화학부 시위가 지난 11월 7일(월)부터 약 2주간 진행됐다. 시위 내용은 학습권 침해로, 피켓과 호소문, 해당 시위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연명서(동의서) 서명을 통해 입장을 표했다. 앞으로도 본교와 연극영화학부 각 입장에 관심을 가지고 행보를 지켜 봐야 할 것이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박제현 수습기자 zzcjftjdz@sungkyul.ac.kr

공유협력 대학(U7) 비교과 성과 공유 워크숍 성공적으로 마쳐



11월 10일(목) 14시부터 16시까지 본교 학술정보관 6층 아립국제회의실에서 교육혁신지원센터가 주관한 공유협력 대학(U7) 비교과 성과 공유 워크숍이 진행됐다. 경기남부대학교 협의체(U7) 소속 대학 간 공유·협력의 위한 비교과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해 비교과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사례 성과를 확산하고자 했다. ▲강남대 ▲성결대 ▲안양대 ▲평택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총 5개의 비교과 사례 발표 및 공유를 통해 본교 비교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글 - 박미경 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원양성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교가 11월 9일(수) 교원양성과정 내실화를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동부·북부교육지원청 ▲인천신현고등학교 ▲양명고등학교 ▲서울국악유치원과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본교는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봉사를 통한 기초학력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예비교사들의 미래교육역량과 현장성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청 및 현장학교, 교원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학교 현장학습, 실습학기제, 교육봉사활동) 및 현장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협동 연구·강의와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교육실습 시 현장 교사의 전

업무 과정 참여와 실질적인 학생 지도 역량 함양 지원 ▲ 상호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식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교육청과 현장학교 그리고 교원양성기관이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협약 연구·강의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면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많은 경쟁력 있는 예비교사가 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무 협의체를 통해 건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글 - 진태민 수습기자 ses7809@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참여해주신 독자들 모두 감사합니다!

instagram | sku_press
e-mail | skupress223@naver.com
H.P | 010-5796-1596
office | 학생회관 223호

‘(사)베데스다와 함께하는 사람들’ 장애인 대상 커피바리스타 교육과정 진행



본교 지역사회협력단 교육기부단 커피 바리스타 팀 학생들이 ‘(사)베데스다와 함께하는 사람들’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10월 4일(화)~12월 6일(화)까지 주 1회씩 커피 핸드드립 및 드립백 포장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협력단 커피 바리스타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들이 강사로 활동하도록 팀을 구성했으며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었다. 지역사회협력단 김계동 단장은 “장애인들이 커피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 역량과 시설을 공유해 커피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뜻을 밝혔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 dus1596@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마이내비 CEO초청 기업 설명회 및 기업컨설팅 주관



본교 문화프레임빅데이터 연구소(연구소장 이준서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서울재팬클럽(SJC)과 함께 일본 최대 취업포털 마이내비 기업설명회와 기업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했다. 나가라 타로(柳樂太郎) 마이내비코리아 대표이사는 입사 당시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한 마이내비의 발자취를 설명했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의 대기업 편중 현상 지적과 건실한 강소기업을 발굴하는 노하우를 전파했다.

더불어 토픽모델링, SNA분석 등의 본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컬처 마이닝(Culture Mining)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마이내비에 대한 기업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에 나가라 사장은 “마이내비 사업 확장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했으며 이준서 연구소장은 “컬처 마이닝을 활용해 학생들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기업체의 사업확장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 dus1596@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2022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참여



본교 외국인 유학생 18명이 지난 10월 21일(금)~22일(토)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주최, KOTRA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인재 구인 수요 충족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 본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사전에 접수해 국내 여러 기업과 1:1 채용 상담 및 기업 설명회, 체류 비자 특강, 취업서류 컨설팅 등에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 쩐티김오안 학우는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을 강화해야 하고,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취업역량을 키워가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상식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취업을 위해 진로 및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설계해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 dus1596@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기념관, SKU 카페와 ‘타임 투 베이크(Time to Bake)’ 오픈



지난 12월 1일(목) 기념관 1층에서 본교 김상식 총장과 교무위원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타임 투 베이크(Time to Bake) 김도균 대표와 함께 (가칭) ‘SKU 카페와 타임 투 베이크’ 오픈 커팅식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타임 투 베이크는 본교 학생들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인지도가 있던 베이커리였으나, 2023년 재개발 예정인 학교 앞 상록지구에 포함돼 있어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와 지역사회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편안한 공간과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본교는 기념관 1층에 영업 공간을 마련해 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해당 공간이 학생들에게 스터디 카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테이블과 의자 또한 교체했다. 이에 발맞춰 타임 투 베이크는 학생 맞춤 신메뉴를 개발해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맛있고 건강한 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김도균 대표는 “작은 빵집이라 일부 품목들이 빨리 떨어지는 것이 죄송하지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뜻을 전했다.

한편 해당 베이커리는 온라인 예약 주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협업해 음료와 빵을 함께 주문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업 및 상생을 위한 온라인 예약 주문 플랫폼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 dus1596@sungkyul.ac.kr
사진 - 본교 제공

2023 총선거 & 제 38대 正:진 총학생회장 인터뷰

‘코로나19 시대’ 종결에 발맞춰 이번 2023년 총선거는 대면으로 진행됐다. 비대면 생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대면 총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열렬한 선거 유세를 펼쳤다.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학생들이 직접 출마하는 입후보자의 공약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직접 추천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후 11월 21일부터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교 학생회관 4층 체육관에서 총선거를 실시했다. 학생들의 열띤 발걸음 덕분에 3일 내내 본교 체육관은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이번 39대 총학생회 입후보자는 정 박주혁, 부 강정흠 학우가 ‘다시 만나는 새로운 내일 RE:NEW’라는 슬로건을 걸고 단일 후보로 나왔다. RE:NEW의 주요 공약은 ▲교육 환경개선협의회 진행 ▲총학생회 주관 MT 개최 ▲찾아가는 총학생회 ▲등록금 협의회 진행 ▲무인 편의점 설치 ▲학생 예비군 복지 등이 있었다.

후보자들의 열띤 선거 유세와 학생들의 수많은 발걸음이 체육관으로 향했지만, 아쉽게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교를 위해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을 38대 총학생회장 조민주 학우의 인터뷰를 들어보자.



제38대 총학생회장 조민주

1. 이번 임기 동안 이뤄진 공약 이행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 45개의 공약이 있었고 그중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 ▲교양과목 선호도 조사 ▲마스코트 공모전 ▲개강 키트 제작 등 6개 정도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행률을 계산하였을 때, 대략 83% 정도가 나왔습니다. 학우들 앞에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지키지 못한 것에 유감이며 자책을 느낍니다.

하지만 공약 이행률보다 중요한 것이 공약 이행의 완성도(이행 수준)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실행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얼마나 공약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지킨 공약 중 가장 자신 있게 이행했다고 보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지난 8월 한여름, 본교 80명의 학우들과 함께 5박 6일간 다녀온 ‘제주 올레?’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떠나보자!’라는 일념으로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단대 학생회와 과 학생회 등 20명 남짓의 학생 기획단이 자발적으로 모여, 하나부터 열까지 기획하고 준비하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대 자료가 전무한 프로그램이었고, 제주도라는 특성상 사전답사가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행사 당일 폭우로 인해 비행기가 지연돼 불안한 행사의 시작이었지만, 우려와는 반대로 80명의 학우 모두가 하나 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마무리가 돼 돌아오는 날까지 그 자체로써 ‘학생자치 활동의 순수 목적과 부합하는 프로젝트

랩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는 의미가 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8명이 한 조를 이루어 총 10개 조를 편성했는데, 11월인 지금도 조원들끼리 자주 만나 그때의 추억을 회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대학 생활의 한 추억이 됐다는 것이 제게 많은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프로그램 총괄자로 혼자만 소속된 조가 없이 따로 업무를 진행했기에 함께한 조원들이 없어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3. 지키지 못한 공약 중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과 마스코트 공모전입니다. 첫 번째, 수강신청 시스템 ‘취소-지연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강신청을 위해 이미 올 초 정보기획과와의 기술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도입 직전 대학 본부 측에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학생 설문을 요청했고, 선호도 조사 결과 재학생의 2%라는 낮은 참여율과 낮은 찬성률로 도입이 취소됐습니다.

두 번째, 마스코트 공모전입니다. 마스코트 공모전 또한 기획과 준비는 모두 마쳤지만, 마지막으로 대학 본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진행이 취소됐습니다.

미승인 이유는 ‘마스코트 제작’ 행위 자체가 새로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대학교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대학인 만큼 하나님 이외에 학교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를 제작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공약 모두 시행 직전에 취소됐던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4. 올해 정진 학생회에서 진행한 사업 행사 가운데 특히 아쉬웠던 것이 있을까요?

사업적으로 완성도는 코로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모와 기획보다 다양하고 풍성함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비례한 학생지원 예산으로 인해 준비하고 기획했던 부분들을 현실과 타협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고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5.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이한 대면 행사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을까요?

학생 사회의 발전과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생자치기구의 본질을 찾아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자치 활동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행사가 아닌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 임기기간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학보사 기자님들과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질문지를 보면서 지난 임기를 되돌아봤습니다. 지난날들의 행보들을 돌아보며 그 시기마다 임기에 임했던 마음가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보자 다짐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쉽 없이 달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많은 것을 하고자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 소홀했던 것도 같네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일적인 부분에서는 참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알려준 한 해였습니다. 소중한 기회와 추억을 선물해 준 본교 5000명의 학우와 임기를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7.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며 함께 지지해 주고 비판해준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38대 그대를 향한 올바른 나아감 正:진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조민주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설레는 마음과 긴장감을 가지고 시작한 임기가 어느덧 마무리됐습니다. ‘학생이 주인 되는 학교를 만들겠다. 학생들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뜻으로 모인 저희 正:진 총학생회의 이름처럼 늘 학우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임기의 일렬을 돌아보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학우들이 많이 비판해 주고 지지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기구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 제 스스로에게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하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들의 관심이 없다면 그 자체로 힘과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正:진 총학생회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38대 총학생회는 이제 임기를 마치지만, 12월 1일부로 새로이 출범하는 모든 학생회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조금은 서툴더라도 비난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2023학년도를 이끌어 나갈 성결대학교 학생자치기구의 목표와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총선거 단대별 공약 살펴보기

대의원회 선거를 시작으로 본교 학우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학생자치기구의 2023 총선거가 11월 21일(월)~11월 23일(수)에 진행됐다. 이번 호에서는 각 단대별 입후보자의 공약 및 당락결과를 살펴보자.

당선
2023총선거



신학대학
그의 빛을 비추는, 등불

정 신학부 18학번 백세운
부 기독교교육상담학과 21학번 엄요한

주요 공약 - 신학대학 행정조교 증원 요청, 대강당 보수 요청, 멘토링 지원, 신학대학 체육대회,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이벤트 등

당선
2023총선거



인문대학
그대에게 온 힘을 쏟아부을, ALL:인

정 영어영문학과 20학번 이규상
부 국어국문학과 18학번 김준모

주요 공약 - 인문대의 연합을 위한 MT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교복 데이, 인문대 봉사 단체 개설, 광고 기획안 공모전, 영암관 환경 개선 등



글로벌경영기술대학
그대를 빛낼 하늘, 청천

정 산업경영공학과 17학번 박현우
부 동아시아물류학부 17학번 원동현

주요 공약 - 연합 MT, 글경대 리그, 글경대의 날, 다양한 행사 및 격려 이벤트, 물품대여사업, 글경대를 위한 설명회 및 졸업식 준비 등

당선
2023총선거



사범대학
그대의 미래에 즐거움을 더해줄, 라온하제

정 체육교육과 17학번 박준호
부 유아교육과 21학번 이다송

주요 공약 - 교재 물려주기, 고시반 지원,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이벤트, 연합 MT, 사범대 학생들을 위한 소통 창구 등



IT공과대학
그대에게 다가가는 물결, 파란 [波瀾]

정 컴퓨터공학과 19학번 이영준
부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21학번 이윤채

주요 공약 - 공대인의 밤, 공대리그, 예비대학,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이벤트, 성결대 미관 개선 사업 등

당선
2023총선거



예술대학
예술과 함께 꽃이 되어 피어오르리, 百花爛漫(백화난만)

정 뷰티디자인학과 21학번 이지혜
부 음악학부 18학번 당현민

주요 공약 - 예술대 학생들을 위한 소통 창구, 기념관 화장실 및 환경 개선,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이벤트, 학부(과) 교류 증진 사업 등

글 - 박제현 수습기자 zzcjftjdz@sungkyul.ac.kr / 사진 및 참조 - 성결대학교 제3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대 시작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함초롬제

지난 11월 2일(수)~11월 3일(목) 본교 학술정보관 6층과 아람국제회의실에서 유아교육과가 주최한 제42회 함초롬제 '꿈꾸는 탐험가'가 진행됐다. 이번 함초롬제는 유아교육과의 졸업전시작품 관람이 가능했으며 본과의 소모임 '락유'에서 준비한 등극도 관람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올해는 유아 방문도 함께 이뤄져 더욱 뜻깊은 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대학, Snow-Now

지난 11월 8일(화)~11월 9일(수) 본교 중생관 앞에서 제24대 '소복히 쌓여갈 우리의 지금 with uS-now, S-now'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주최한 마지막 계절 행사인 Snow-Now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겨울을 맞아 학우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빨간 어묵이 간식으로 제공됐다. 또한 예능부와 동아리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풍성한 행사를 만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글로벌경영기술대학, 글로벌물류학부 물류인재상

지난 11월 10일(목) 본교 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0회 글로벌물류학부 물류인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물류인재상은 물류 관련 자격증, 토익 학점, 봉사 등을 기준으로 물류인재 자격을 갖춘 재학생에게 물류기업이 수여하는 인재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수상자는 총 41명으로 총장상은 김태현(동물17) 학우 외 2명, 학과장상은 박미경(동물20) 학우 외 37명이 수상했다.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잉글리시 페스티벌

지난 11월 24일(목) 본교 학술정보관 아람국제회의실에서 영어영문학과가 주최한 제20회 English Festival이 열렸다. ▲영어 코스 ▲영시 낭송 ▲드라마 ▲스피치 ▲밴드와 스페셜 무대 등 다채로운 버라이어티 쇼를 볼 수 있었으며 모두 영어로만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교실에서만 배웠던 영시, 드라마, 스피치 등을 무대 위에서 공연함으로써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올해는 본과 40주년이자, 3년 만에 무대 위에서 진행돼 동문뿐 아니라 학부모도 참여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됐다.

글 - 박제현 수습기자 zzcjftjdz@sungkyul.ac.kr / 사진 - 학보사 일동

K-디지털 아카데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 많은 전통적인 산업군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자는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는 'K-디지털 아카데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을 민간 혁신 기관 중심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 'K-디지털 아카데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실무역량으로 디지털 능력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 분야에서의 직업훈련 필요성도 대두됐다.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추진 중인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혁신적인 기술·훈련 방법을 가진 기업, 대학, 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지원 가능하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훈련비가 전액 지원되며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매월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아 부담 없이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에는 ▲멋쟁이사자처럼 ▲엘리스 ▲멀티캠퍼스 ▲우아한테크코스 ▲네이버 ▲모두의연구소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훈련기관·선도기업·대학 등이 훈련 기관으로 참여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기반 기술과 이를 활용한 핀테크, 스마트 제조 등의 응용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전공 청년이라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디지털 분야 기업들과 혁신 훈련기관이 협약을 맺고 함께 설계한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평균 6개월, 주 5일 8시간씩 운영되는 집중훈련과정을 거친 후 기업 참여를 통한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강의형 지식 전달이 아닌 프로젝트 과제 수행, 해커톤, 기업과제 해결 등 경험과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개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디지털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통해 배우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기초코딩, 웹·앱 개발 등 디지털 기초 과정을 언제 어디서든 100% 원격으

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분야 비전공자들의 첫걸음을 위한 훈련과정이다. 디지털 분야에서 근무하길 희망한다면 이를 통해 취업 시 보다 더 편리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직접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트랙 '데이터 분석과정', AI 개발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 과정' 등이 있다. 이외에도 ▲iOS 개발 입문 ▲금융 데이터 분석 ▲코딩으로 드론 날리기 ▲데이터 엔지니어 첫걸음 등 다양한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과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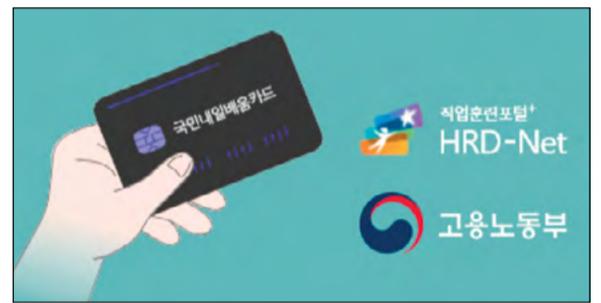
온라인 수강절차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과정검색 및 신청→수강신청 확인→자부담 결제 및 확인' 순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과 별도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과정 신청 시 훈련생의 훈련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10%의 자비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과정 수료 시 전액 환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교 3학년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지원 제외 대상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등이 있다.

지원 금액은 기본 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된다. 앞서 언급한 K-디지털 트레이닝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뿐만 아니라 ▲디자인 ▲법무 ▲전산 ▲세무회계 ▲간호 ▲기계 ▲냉동공조 ▲전기 등 다양한 훈련이 제공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 국가의 기간이 되는 중요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과정 이수 후 내·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훈련과정인 '과정평가형훈련',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훈련과정인 '플랫폼 종사자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사진/참조 - 직업훈련포털 HRD-Net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취업날개서비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드림윙즈(홍대) ▲마이스윗인 터뷰(신촌, 사당) ▲슈트갤러리(논현, 충정로) ▲슈트패브릭(청담) 등 10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장과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보유하고 있

어 면접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들을 한곳에서 빌릴 수 있다.

취업날개서비스는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구직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여 연간 1인당 최대 10회까지 무료 대여가 가능하다. 첫 대여 시 오프라인 대여를 해야 하고 2회부터는 온라인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첫 대여 시 측정했던 자신의 치수를 토대로 택배 또는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안양 청년 공간



안양 청년 공간은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인 자기 계발 활동과 청년간 소통과 교류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오픈공간이다. 안양 청년 공간은 범계역 롯데백화점 지하 1층 범계역 광장 내 위치해 있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무료이다. 화-토요일에는 10시부터 21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19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월, 공휴일은 휴관이다. 안양 청년 공간에서는 스터디나 회의, 자기 계발 활동을 위한 시설을 대관해 준다. 대관 기준은 ▲공익 목적의 청년 활동 관련 행사 및 회의 ▲범계역 청년 출구와 MOU 협약을 맺은 단체·기관 및 청년 관련 행사 ▲범계역 청년 출구 자체 사업 등이며 청년 출구 자체 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문화로운 청년생활(One-day class) ▲청년 토크콘서트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등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사진/참조 - 취업날개서비스, 안양청년광장

노동자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요?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여러 사고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어쩌서 그들의 작업 현장은 열악하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지 이번 호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221시간의 기적

10월 26일 제1 수직갱도에서 토사 약 900t이 수직 아래로 쏟아지며 경상북도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립됐던 2명의 광부가 221시간 만에 무사히 생환했다. 구조 후 안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케이블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제2 수직갱도 구조 경로를 통해 걸어서 지상으로 이동했다. 당국이 갱도 내 막혀 있던 최종 진입로를 확보함에 따라 구조됐는데 광부들이 직접 갱이로 암석을 파둔 덕분에 구조 시간을 앞당겼다. 암석 덩어리로 뒤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3편 본선 갱도' 마지막 폐쇄 지점 약 30m 구간이 예상과 다르게 약 20m가 뚫린 상태였다. 구조 지점은 두 광부가 사고 당시 작업을 했던 곳 인근이었으며 갱도 내에서 구조 당국의 발과 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고 한다. 사고 당일인 10월 26일 작업 투입 때 챙겨간 커피 믹스와 물을 먹으며 버텼으며, 이를 다 먹고 난 뒤에는 갱도 안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신덕에 생존할 수 있었다. 두 광부는 부축은 받았지만 스스로 걸어 나와 구급차에서 구급대원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건강했고 1주일간 입원 후 건강하게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할 계획이다.



안전의 중요성



경상북도 봉화군 아연 광산 붕괴 사고로 매몰된 광부 2명이 극적으로 생환했다. 하지만 광산 안전 관리 강화는 여전히 큰 문제이다. 생환 광부 박정하 씨도 11월 11일 퇴원 기자 회견에서 "일하는 환경이 80년대 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구조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이유 중 하나는 실제와 맞지 않는 지하 갱도 도면의 문제였다. 20여 년 전에 작성된 도면을 토대로 생사 확인을 위해 지표면에 수직으로 땅을 뚫는 작업을 하다 보니 도면과 달라 실패하는 일이 빈번했다.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광산안전도'에는 갱도 세부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광산안전도가 당국이 안전 점검을 할 때 활용하는 핵심 자료라는 부분에서 이는 광산 감독의 제도적 허점이다.

광산에서 종종 발생하는 불법 광물 찌꺼기·슬러지 처리 작업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폐쇄 광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백필(Back-fill) 작업'에 들어서는 안 되는 광미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광미는 반드시 지자체가 허가한 광미장에 버려야 한다. 생환 광부 박정하 씨도 "백필 작업은 정부도 권장한다. 슬러지를 빈 공간에 넣어서 매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이번 사고 지역은 지반침하로 땅 꺼짐 현상이 생겨 추락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백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다만 이 작업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작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행정력도 광산 안전에 위협 요소로 꼽힌다. 지난 9월 이철규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광산안전관은 동·중·서·남·주 총 4개의 사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 14명을 포함해 25명뿐이다. 이들이 전국 332개 광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광산안전관 1명이 광산 14개를 맡고 있다는 뜻이다. 성희직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진폐상담소장은 "사

고는 한순간에 일어난다. 사고 현장은 불과 몇 달 전에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 관계 당국이 더 신경을 써야 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받아야 할 안전

10월 15일 모 기업 계열사의 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소스 혼합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노동자의 오른팔이 기계에 걸리면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없다고 봐도 무방한 안전조치였다. 국과수가 부검한 결과 숨진 노동자의 오른쪽 팔이 부러져 있었다. 이는 교반기 회전날개에 걸려 몸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국과수는 A씨가 소스를 섞기 위해 기계에 손을 넣었거나 과로로 집중력이 흐려졌을 것으로 추측했다. 원래는 안전상의 문제로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자동방호 장치 즉, 인터록이 있어야 했는데 해당 기계에는 없어 노동자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과로를 느낄 만큼 모 기업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는 높았다. 주야 2교대로 12시간 근무는 기본이었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엄청난 강도의 작업을 해야 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쉬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일 2인 1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공장 일 특성상 기계에 미끄러져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2인 1조 작업이 필수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명이 근무를 설 동안 다른 한 명은 배합실 밖에서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2인 1조라고 볼 수 없었다. 회사 측에서는 "메뉴얼대로 2인 1조 근무를 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강규형 화성식품노조 SPL지회장은 "누가 기계를 잡아만 줘서도 사망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 2인 1조라고 해도 한 사람은 재료를 갖다주고 배합해서 나온 소스를 옮기는 등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2인이 함께하는 작업이 되려면 3인 1조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센 불매운동

깜:빵집

손길이 닿은 제품과 가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품인지 확인해보세요

아직은 베타버전이며 880으로 시작하는 유통바코드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빵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모 그룹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기업 계열사 브랜드의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물론 제품이 해당 계열사의 제품인지를 알아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안전 수칙은 피로 적힌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후속 조치로 안전 수칙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생긴 안전 수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름이 없다.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아직 작업 현장은 열악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어떤 업무에서든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

글 - 박미경 기자 qkrallud0827@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뉴시스

[참조] 뉴시스, 아시아경제, YTN, 국민일보

집은 많은 그들의 목소리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옮겨 작성한 문서이다.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이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역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소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한다. 부동산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자료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등기부등본에 대한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자!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는 앞서 말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돼 있는 공적 장부이다.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그 외 권리 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다. 먼저 표제부에는 등기한 순서, 접수 날짜,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되며 건물의 구조와 층수, 용도, 면적 등을 알 수 있다. 갑구는 소유권과의 관계사항이 표시돼 있으며 순위의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 원인, 관리자 등을 알 수 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를 알 수 있다. 즉 소유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이다.

등기부 등본 (현재 유효사항) - 토지 [제출용]						
[표제부]		[갑구]		[을구]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3	2005년10월7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옥도리 1	임야	3320㎡	측적변경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1 (권1)	소유권보존	1968년3월13일 제56호	소유자 국 관리청 국토해양부 275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세무서, 구청,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집을 사려다 집을 날렸어요

법원 등기기록광장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은 약 300만 건이며, 최근 1년간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도 약 86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 사기 피해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5월 신혼부부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아 집을 마련한 예비 신랑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뺏다가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만다. 집주인 B씨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결혼식을 바로 앞두고 있던 이 신혼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두렵다.”고 했다.

등기부등본 사기는 ‘등본 세탁’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2017년 화물차 운전자 장모씨와 아내 윤모씨는 자비 5,000만 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 3,000만 원을 합쳐 빌라를 샀다. 하지만 2020년 3월 전집주인인 김모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과 허위 등기부등본 근저당 말소 기록을 근거로 은행이 소송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부부는 구매 전에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었다. 이는 전집주인 김모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1억 4,280만 원을 대출받아 은행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세탁한 것이다.

공신력 없는 상층의 등기부등본?

공신력이란 공적인 신용을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등기는 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다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결과이다. 광복과 농지개혁, 1950년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등기관계나 땅에 대한 자료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대해 등기부등본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오갔으며 국회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을 제정해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치중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어쩌서 공신력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위한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의 부동산 소유주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더불어 등기 절차가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변화돼야 한다. 막대한 예산의 소요는 물론 제반 제도가 미비해 난항을 겪는 것이다. 공신력 인정을 위한 원인증서 공증과 등기 공신력 인정이 비용 대비 크지 않은 이익 또한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만은 토지법 제43조를 근거로, 본 법에 따라 이뤄진 등기는 절대적 효력과 공신력을 인정한다. 또한 등기담당 기관이 그 손해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진다. 미국은 등기로 인한 피해자 보상제도가 있으며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피해 보상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본 청구권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민법 107조~112조와 관련해 ‘사기나 허위의 의사표시 등에 속아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국가로부터의 배상이 어려우며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면 배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어 전세

· 국민청원 및 제안(2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 공신력인정을 해주세요
[청원시작 : 2018-01-30] [청원마감 : 2018-03-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 공신력인정을 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등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의 모든 서류가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실명제 이후에도 많은 분쟁과 다툼,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있는 문서로 인정해주세요
[청원시작 : 2018-11-02] [청원마감 : 2018-12-02]

오늘 jtb의 뉴스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이모씨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정당하게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집을 매매했는데 갑자기 소유주의 조카란 사람이 상속분이니 내놓으라니...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집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등기부등본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해주세요 법원에서 등기부비용은 다받고 인정은 안해준다네요
[청원시작 : 2018-11-02] [청원마감 : 2018-12-02]

오늘 뉴스를 보고 치가 떨립니다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집을 정식으로 산사람에게 집을 다시 3자인 상속권자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이 났다니요 그 전 주인이 살해되고 법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한 살인자가 법적으로 하자없게 그 집을 팔았다네요 근데 살인자가 잘못된것은 이...

등기부등본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져라
[청원시작 : 2018-11-02] [청원마감 : 2018-12-02]

등기부등본 하나 믿고 집을 사는데 어느날 갑자기 원주인이 사기당했다고 나타나고 법원은 그 손을 들어주고 5천만 국민이 모두 피해자가 될수있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을 사서 살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항상 불...

등기부등본 믿고 집산사람이 잘못인가요?
[청원시작 : 2018-11-02] [청원마감 : 2018-12-02]

어제jtb 뉴스보셨나요? 등기부등본믿고 집 샀는데 매도인의 조카상속자가 나타나 집을 돌려달라했더니 법원에서 돌려주라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곧 아파트매매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그럼 대법원장은 집살때 미보고 사시나요??? 왜 합법적인 절차미준 집산사람한테 ...

법원의 등기부 등본 믿을수있나요?
[청원시작 : 2018-11-02] [청원마감 : 2018-12-02]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입할때 국민은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삽니다, 즉 대한민국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믿고 사는것입니다, 채권이 있는지 은행에 저당을 잡혔는지를 법원의 공신력있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사는겁니다, 그것의에는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법원이 등기부등본...

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깡통 전세’라고 칭하기도 한다. 즉 공신력 보장은 추후에 이뤄지더라도 우선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는 시급한 바이다.

#거래할 때는!

그렇다면 등기부등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거래자 대면이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등기부 취득시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선의와 무과실로 점유한다면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인데, 매입 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골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이 방법이 소용없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전 현장 방문과 기록상 주인, 실소유주 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집스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내집스캔은 주소지와 계약 정보를 입력한다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악성 임대인 여부를 분석해 전체적인 사기 위험도를 알려준다. 법원의 DB 및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 접수 데이터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내 집 마련’, 직장인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준생에게도 평생의 꿈일 것이다. 하지만 이 평생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 피해 사례를 눈여겨보고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 진정한 ‘홈 스위트 홈’을 마련해보자.

글- 이서연 편집장 tjidus1596@sungkyul.ac.kr
사진 - 時事 매거진, 민원365, 내집스캔

[참조] 에스폼 서식사전, 이코리아, KBS NEWS, 한경신문

기/자/담/판

학교 수업자료 저작권료 지급

최근 교사들의 수업 자료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는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으로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업자료에 관해 저작권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물론 각종 교재에 사용되는 그림과 도안, 다큐멘터리 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저작물들이 무료로 사용돼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연간 69억 원 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은 신탁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간다. 저작권료 지급이 교사의 저작물 사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주장과 공교육의 교재에까지 저작권료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찬성과 반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자.

찬성

현재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부터 참고서까지 다양한 수업자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목적에 한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6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되며 초·중·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자료에 대해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초 '저작권법'이 제정되던 당시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현재까지도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및 지식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적 재산이며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배타적 가치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로써 지식산업이 융성해지고, 저작권 확보를 위한 창의성도 한층 발휘됨에 따라 사회는 진보하며 국가는 성장할 것이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 및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개인을 대리해 각 교육청이나 중앙정부가 저작권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일선 교사들은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교사가 마음 놓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모두가 주장하는 ▲공교육 정상화 ▲학교 교실의 수준 향상 ▲폭넓은 수업자료 사용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대학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식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해 매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포괄방식' 형태가 될 전망이다. 매년 학생의 수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초·중·고등학교가 포괄방식을 이용한다면 비용은 일반대 금액 적용 시 작년 학생 수(532만 3,075명) 기준 연간 약 69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반대 여론도 속출하나, 정 의원실 측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대학보다 더 낮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글 - 정예슬 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DATA AI
[참조] 한국경제

반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지만 공교육 역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다. 공교육의 근본적인 핵심인 학교 교육 교재에서까지 저작권이 강조되고, 법적인 보호로 강제하게 된다면 교실의 학습 또한 강제되며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작권은 그 내용부터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저작권 보호나 보상 방식은 더욱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을 둘러싼 권리와 침해, 보상 등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는 연간 69억 원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해마다 급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료의 보상 방식과 계산에서 보상금을 간접 지급하거나 후에 지급한다고 해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그 문제가 개인 책임으로 될 경우, 위험을 감내하게 되는 교사는 수업을 진행할 때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영상물과 참고서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초·중·고교에 적용된 현행 법과 달리 저작권료를 지급하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교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범위가 매우 넓어 사용자가 사전에 일일이 검토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업자료 준비에서부터 교사들이 위축된다면 오히려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익인 공교육, 학교에서의 교재는 저작권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발의와 함께 "현재 각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에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의원의 의견도 존재했지만 실제 경기도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료까지 지불하게 된다면 재정에 부담이 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한 초등학교의 교사는 "학생수에 맞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선생님들은 교과서만 이용할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자료를 이용할 뿐,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데 저작권으로 인해 교육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니 난감하다."라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쓰지 못하는 것은 공교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이 채택될 경우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은 교육 현장으로, 현장에서 또한 공익 차원에서 적어도 공교육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의와 공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이 채택되게 될 경우 교육계와 교사 사회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수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 모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렇기에 찬성과 반대 모두 공익을 위해 학교 교육과 현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면서 공교육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공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글 - 김주희 기자 wngml5216@sungkyul.ac.kr
[참조] 한국경제TV, 경인일보

김장철 특집! 김치에 숨겨진 과학은?

겨울이 다가오는 쌀쌀한 늦가을이 되면 많은 한국인들이 김장에 대한 화제를 나누는데, 김장은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풍습이다. 김장철을 맞이해 매콤새콤 맛있는 김치의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 알아보자!

김치

김치는 한국 고유의 향신료와 해산물로 양념해 발효한 한국 방식의 채소 저장 식품을 일컫는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760년 이전에도 한국인의 식단에는 김치가 있었다고 한다. 김치는 계층과 지역적 차이를 떠나 한국인의 식사에 필수적인 음식으로 밥과 김치는 가장 소박한 끼니이지만 고급스러운 연회장에서조차도 김치는 빠질 수 없는 반찬이다.

김장은 한국 전역에서 오랫동안 행해진 음식 풍습이다. 기

본적으로 한국 전역에 걸쳐 김장 문화는 매우 동질적이지만 각 지역마다의 지리 조건과 기후에 따라 재료나 방법에서 향토색이 많이 나타난다. 기온이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김장 시기가 늦어지고 염분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김장은 한국인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합한 음식 문화로 지역 생태계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인은 특수한 자연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개발했다. 따라서 김장은 한국의 자연적 주거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김장 과정

김장 준비는 매해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봄철이면 각 가정은 새우와 멸치 등의 해산물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다. 여름에는 2~3년 동안 저장할 천일염을 구입해 쓴

맛이 빠지도록 한다. 늦여름에는 빨간 고추를 말려서 가루로 빵아 둔다. 늦가을에는 날씨를 고려해 김장에 알맞은 날씨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김장하기 좋은 시기는 일 최저기온

0°C 이하, 일 평균기온 4°C로 유지될 때 가장 맛있다고 한다. 김치를 담근 후 최고의 맛을 얻기 위해서는 시원하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저장해야 한다.

김치의 과학

세계에는 요거트, 사우워크라프트, 낫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발효식품이 있다. 김치 또한 발효식품인데, 발효라는 것은 무엇이고 김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발효란 미생물이 산소 없이 유기물(당류)을 분해해 그 대사산물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뜻한다. 대사산물은 식품에 주로 이용되는 결과물로 ▲젖산 ▲알코올 ▲아세트산이 있다. 부패의 과학적인 의미도 미생물이 유기물(당류)을 분해해 그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같지만, 그 결과가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따라 발효와 부패로 달라진다.

김치에서의 발효는 유산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김치에서 발견되는 주요 유산균은 ▲류코노스톡 속 ▲락토바실러스 속 ▲웨이셀라 속이 있다. 유산균들은 김치의 유기물들을 발효해 젖산을 만드는데, 젖산은 산성물질로 김치의 환경을 산성화시킨다. 산성화된 환경에서는 산성에 내성이 있는 미생물만 자랄 수 있고 이는 내산성 유산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일반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들은 산성화된 환경에서는 자랄 수 없다.

김장을 하기 전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은 미생물의 선

택적 배양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추를 염장하면 배추 속의 물이 빠져나오는데, 이를 삼투압의 원리라고 한다. 삼투압은 배추의 세포막 같은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성 막을 사이에 두고 물이 소금의 농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소금의 농도 차이가 생겨 삼투압이 형성되고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 양쪽의 농도를 같게 맞추려고 하는 성질이다. 이러한 삼투압의 원리로 배추 내부의 물을 제거하게 되는데, 물을 제거하면 미생물의 생육은 어렵게 되고, 산성환경과 높은 염도로 부패를 일으키는 잡균을 제어해 유산균만 선택적으로 김치에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치의 저장 방법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계절별·지역별로 그에 알맞은 김치 저장 방법을 고안해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먹었다. 여름에는 냇가나 우물에 김치독을 담가 더운 날씨에 김치가 쉽게 쉬는 것을 막았다. 석정과 이종독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석정 안의 향아리 입구에 물이 흐를 수 있는 틈이 있는 이종독을 넣고 차가운 물을 흘려줌으로써 이종독이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겨울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땅속에 김치독을

파묻어서 김치가 얼지 않고 오랫동안 맛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땅에 묻은 김치독을 눈비로부터 보호하고 오랜 기간 보존하기 위해 김치광을 만들었다.

현대는 보관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넣어 숙성시킨다. 일반 냉장고는 문을 열면 내부의 차가운 공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외부의 따뜻한 공기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 공기가 다시 적절한 냉장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 김치가 쉽게 쉬게 된다. 김치냉장고는 서랍식 또는 상부 개폐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문을 열더라도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 원래의 냉장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김치를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장문화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마지막으로 한국의 김장문화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 인정받아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한국시간으로 2013년 12월 5일,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김장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유네

스코는 김장문화가 한국인들에게 나눔과 결속을 촉진하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유산인 점에 주목했고, 자연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 대화를 촉진해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글 - 김주희 기자 wngml5216@sungkyul.ac.kr
사진 - 뉴시스, 두산백과, 한성쇼케이스
[참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두산백과, 양주시 공식블로그 [클릭양주]



잊힌 좌우합작론자, 여운형

최근 북한의 도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사일을 쏘며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 이런 비극적인 분단은 좌우 이념 대립으로 시작됐으며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중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잊힌 여운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제의 패망 이후 한반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국은 해방됐다. 하지만 한반도는 38선으로 분단되면서 이남은 미국,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했다. 이후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 한반도에 독립 임시정부 수립과 미소공동위원회가 구성돼 5년간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 이를 둘러싸고 한국인들의 좌, 우 대립이 이어졌다.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美)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몰아갔고,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친공산주의자와 구소련을 친하게 대하는 친소(親蘇)로 몰아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소공동위원회는 완전히 결렬됐다. 그 이후 미국은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유엔총회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중앙정부를 수립하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소련 측은 38선 이북 지역 출입을 거부했고 남북한 총선거는 무산됐다. 이에 유엔소총회는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좌우합작론자 여운형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남북한의 합작을 주장한 사람은 없었을까? 당시 상황에서 좌우합작론을 펼친 정치인이 있었다. 바로 여운형이다. 여운형은 대한제국 시기 신민회 활동과 애국계몽운동을 했다. 1919년에 신한청년당을 만들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 또한, 그는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을 맡은 뒤 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는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했다. 더 나아가 일제 패망 이후, 1945년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해 남북한 정부 수립, 좌우합작운동을 펼쳤다. 좌, 우 이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여운형은 정치인들에게 배척의 대상이자 암살 표적이었다.

#여운형 암살

그는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한 뒤 김규식과 좌우합작운동을 벌였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후 1947년 2차 미소공동위원회 성공에 힘을 박차려고 했다. 하지만 1947년 7월 19일 혜화동 로터리에서 차 안으로 난입한 괴한에 의해 총격으로 암살당했다. 여운형

의 암살 사건 진상은 그가 사망한 지 27년 후인 1974년이 돼서야 밝혀졌다. 이마저도 공소시효가 끝난 뒤 암살에 가담한 주동자들이 직접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극우 테러리스트인 양근환, 엄동진 등과 가담자들이 접촉해 여운형을 민족 분열에 영향을 주는 중립주의로 판단해 암살한 것이다. 사건의 진상이 1974년에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때 당시 이념 갈등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운형 암살 뒤 한반도

여운형이 암살된 이후 좌우합작은 물거품이 됐고, 이미 기울어진 이념 갈등의 정세는 견잡을 수 없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은 단독 선거를 진행했으며 북한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198명의 국회를 구성해 헌법을 제정했다. 또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1953년 7월 27일 한반도는 휴전하면서 지금까지도 서로를 경계하며 살고 있다. 한편, 여운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열해 있는 것은 소위 지도자뿐이요, 민중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민중인데 주인의 심부름꾼인 지도자들이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분열만 일삼으면 주인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쟁은 인적, 물질, 정신적인 피해를 줬으며 현재 한반도에도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념 갈등으로 찢어진 한반도를 보며 우리는 평화의 중요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여운형은 암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이념 갈등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글 - 김다운 수습기자 kijg99@sungkyul.ac.kr

사진 -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참조]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걸어서 지역속으로

대구, 네가 가지고 있는 추억을 얘기해줘!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여 그간의 노력과 실력을 보여줄 축제의 장인 '대구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가 2023년 7월 대구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세계 30개국과 90여 개 도시, 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393호에서는 다가올 스포츠의 열기뿐만 아니라 대구만의 즐거움과 먹거리에 담겨 있는 추억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

#색다른 겨울을 즐기고 싶다면 모여라!

수도권의 테마파크하면 잠실의 롯데월드와 용인의 에버랜드가 생각나듯 대구의 테마파크하면 이월드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1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월드에서 제대로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이월드 일루미네이션 2022' 축제가 열린다. 이곳, 이월드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답게 반짝이는 빛이 로맨틱한 겨울밤의 분위기와 만나 동화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은 시너지를 낸다. 종강 이후 이번 겨울을 즐겁고 환상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이월드 일루미네이션 2022'에 가보는 건 어떨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수를 영원히 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이 사람의 수많은 명곡 중 하나는 들어봤을 것이다. 또한, 노래를 들으며 각자의 고민과 고단한 하루를 위로받았을 것이다. 바로 <서른 즈음에>, <사랑했지만>, <거리에서> 등 많은 노래로 우리에게 아직도 눈물과 감동을 주며 사랑받는故 김광석이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故 김광석이 살았던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그의 삶과 음악을 주제로 조성한 벽화 거리이다. 골목에는 그의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며 벽화에는 그의 다양한 모습과 다채로운 창작물을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맛있는 먹거리와 낭만적인 카페도 많다. 그의 감미로운 노래를 들으며 따스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해 추억을 회상해보자!

허한 배 속을 뜨끈하게 채우자!

추운 겨울이 오면 뜨거운 국물이 저절로 생각난다. 한 입 먹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며 피로가 싹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대구 10 째 중 하나인 '논메기 매운탕'을 소개하고자 한다. 논메기 매운탕은 살아있는 메기를 다시마와 무로 우려낸 육수에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인 대구발 신개



념 매운탕이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과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이며, 특히 수제비나 당면을 넣어 먹으면 국물과 어우러져 더욱 깊은 맛을 낸다. 국물의 시원함과 메기의 부드러운 살, 기운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추운 겨울에 보양식을 먹고 싶다면 대구의 논메기 매운탕을 먹어 보는 것은 어떨까?

글 - 진태민 수습기자 ses7809@sungkyul.ac.kr

사진 - 대한민국 국석구석

[참조] 연합뉴스, 대봉문화마을협의회 홈페이지, 대구드림로드



평화는 편견을 깨고 나온다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선입견이 존재한다. 오직 본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이 자신과 다르면 그 사람은 이상하다고 여겨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멀리 두어야 할까? 이번 393호에서는 세상의 편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두 주인공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제목 가위손
개요 ▲ 영화
개봉 1991.06.29
출연 배우 조니 뎀, 위노나 라이더 등

#새로운 만남

화장품 외판원인 펙은 화장품을 마을 사람들에게 팔던 중, 마을 뒤쪽에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내뿜는 성을 발견한다. 성에 대한 호기심 반,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하는 궁금증 반으로 성에 들어간 펙은 성 꼭대기 층에서 가위손을 가진 소년, 에드워드를 만난다. 에드워드는 과거 홀로 살던 한 과학자가 만든 인조인간인데, 과학자가 에드워드의 손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에드워드의 손이 가위였던 것이다. 에드워드는 과학자가 죽은 이후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기 때문에 낮을 가리기는 하지만 손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자신과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동질감과 연민을 느낀 펙은 자기 집으로 에드워드를 데리고 온다.

펙의 가족은 처음에는 낯선 외모의 에드워드의 모습에 어색함을 표현하지만, 에드워드가 자신의 가위손으로 머리 손질과 정원 손질을 멋있게 해주고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모습에 정을 붙이게 된다. 에드워드의 환상적인 가위 솜씨는 펙의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다. 에드워드는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무보수로 정원을 가꿔주고 미용을 시켜주는 등의 봉사를 했고 그런 그의 재능 덕분에 에드워드는 점차 더 유명해지며 TV쇼

에도 출연하게 된다.

#위기의 연속

에드워드는 TV 출연 이후 미용실 개업이라는 꿈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외모 때문인지 은행 용자가 허락되지 않아 미용실 개업은 무산된다. 한편 김의 남자친구인 짐은 도둑질하려는 집의 문이 잠겨있자 에드워드의 손을 이용해 문을 열려 한다. 에드워드는 김을 좋아했기 때문에 짐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도둑질하던 집의 경보장치로 인해 그는 경찰에 잡히고 만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위손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며 에드워드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반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김은 에드워드의 순수한 마음씨를 보고 오히려 그를 향한 사랑을 키워나간다. 마을 사람들의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에드워드와 즐겁게 지내는 김. 그 모습을 본 짐은 에드워드만 사라진다면 다시 김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결국 크리스마스에 에드워드가 김을 위해 얼음조각으로 조각상을 만들고 얼음 가루를 통해 눈이 오는 것처럼 이벤트를 열어주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최고치에 다다른다. 화가 난 짐은 음주운전을 하다 케빈을 칠 뻔하지만, 에

드워드가 케빈을 구해주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미 에드워드에게 편견이 생긴 마을 사람들은 그가 케빈을 죽이려 한다며 경찰에게 총을 쏠 것을 권유하고 에드워드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성에 찾아가기까지 한다. 김과 함께 성으로 피한 에드워드.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압박이 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처음에는 에드워드의 인품과 능력을 보고 친절하게 대하다 절도 사건이 발생하자 외모로만 판단하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결론을 짓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에드워드를 외면하고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에드워드를 찾고 좋아하다가 점차 그의 능력을 악용하고 후에는 자신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에게 상처를 줬다. 지금도 에드워드처럼 편견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크고 넓은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편견에서 벗어나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기보다는 존중해야 한다. 그들을 새로운 또 하나의 인격체 그 자체로 봐야 한다. 그럼 우리가 에드워드가 있던 마을의 모습처럼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행복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목 블랙독
개요 ▲ 드라마
편성 MBC 2019.12.16 ~ 2020.02.04
16부작
출연 배우 서현진, 라미란, 하준 등

#예기치 못한 어둠

교사를 꿈꾸는 고하늘은 임용시험의 벽이 너무 높아 기간제 교사를 하며 다음 임용을 준비하게 된다. 대치고등학교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나온 후에 그녀는 이번 기간제 교사 임용 과정에서 내정된 합격자가 있음을 알게 된다. 알고 보니 그녀의 먼 삼촌이 대치고 3학년 부장이었고 자신이 소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고하늘은 합격 후에도 이런 불편한 진실 때문에 좋은 실력과 올바른 교육 가치관을 따르고 있음에도 다른 선생님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견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녀는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이 낙하산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뽑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학교생활에 매진한다.

교사가 되고 나면 가르치는 일에만 매진하면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서별로 존재하는 파벌싸움과 기수와 나이별로 나누는 철저한 계급 문화, 많은 양의 잡무, 아이들의 성적 싸움 등 학교는 바쁘게 돌아가는 하나의 경쟁사회임을 깨달은 고하늘.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학교에서 적응해나갈까?

#엇친 데 덮친 격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되고자 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돈을 벌기 위해 상위권 학생들만 듣는 방과 후 수업에서 가르쳤던 교재를 활용해 시험 문제를 내는 동료 교사, 역이지만 않으면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이니 조용히 넘어가자는 선배 교사,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상위권 학생들에게 주어진 여러 혜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학생들의 서러움 등을 한 번에 겪게 된 고하늘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져 간다. 거기에 지금까지 문과 1명, 이과 1명이 받던 학교장 추천을 올해 고하늘의 반에서 의대를 2명이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과 2명에게 학교장 추천을 해준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더해진다. 이에 문과 선생님들의 반발심이 커지고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한 아이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립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 더더욱 입시 결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아이들의 솔직한 교원평가와 학부모 입시 상담, 경진대회 및 생활기록부 작성 등으로 학교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바빠진다. 그러나 고하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며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그녀의 절실한 노력만큼 결과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

드라마의 제목인 블랙독은 강아지하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흰색이 아닌 검은색을 가진 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미적인 부분만 보고 흰색 개보다 검은색 개를 입양하는 것을 망설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곤 한다. 이 드라마에서 흰색 개는 정규직 교사이고 검은색 개는 계약직으로 표현하며 인간의 편견으로 인해 소외되는 고하늘의 모습을 담았다. 고하늘은 억울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가치관을 잃지 않은 채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조금씩 성장해나가 검은 개가 우울이 아닌 희망과 발전의 상징임을 보여줬다. 우리가 고하늘처럼 세상의 억압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 편견이 없는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할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

글 - 노하은 기자 dmisu7226@sungkyul.ac.kr

사진 - tvN, 네이버 영화

[참조] 넷플릭스, tvN

왼손 없는 無學의 화가를 아시나요?

지난 2021년 3월,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솔거미술관에서 한 어린아이가 전시된 작품 위에 양탄자 타듯 올라탔다. 아이는 커다란 작품 위를 마치 미끄럼틀 오르듯 올라가 신발을 신은 채 눕거나 밟기도 했다. 이를 본 아이의 아버지는 태연하게 기념 사진을 찍으며 아이를 부추겼다. 아이가 훼손한 작품은 한국화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백의 작품으로 그 가격만 1억 원이 넘는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작가의 반응이었다. 박 화백은 작품을 훼손한 행동에 어떤 문제도 삼키 말라고 말했다. 그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부모가 아이를 원망하게 될 것이고 아이가 미술관에서 가져가는 기억이 그래서 안 된다.”고 답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 이번 호에서는 왼손 없는 無學의 화가, 소산 박대성 화백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주 솔거미술관

#작품 훼손? 고놈이 내겐 '봉황'이다

-봉황이라니, 무슨 뜻인가.
 “작품이 훼손됐다는 뉴스가 유튜브에서 218만회 재생됐다고 한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내 작품을 그렇게 많이 봤겠나. 그러니 고놈이 봉황이지. 전시관에 다시 가서 보니 아이들 눈에는 미끄럼틀 같기도 보이겠더라.”
 -그래도 애써 그린 작품이 훼손됐는데.
 “내가 보상을 요구하면, 그 아이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원망하겠나. 아이도 위축될 테고. 아이가 미술관에서 가져가는 기억이 그래서 안 된다. 인간이 서로 원수지고 살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다들 ‘네 편 내 편’ 하며 비싼 에너지를 값

싸게 소진하나. 물론 관람 문화가 좀 더 개선될 필요는 있다. 이번에 여러 기사가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 본다.”

훼손된 작품은 신라 때 김생 스승이 쓴 하나의 비문으로 작품 길이가 20m에 달하는 상당한 대작이다. 그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는 질문에 시간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일생을 담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어른이 아닌 아이가 한 일에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서화(글씨와 그림)라 하는 창작의 세계는 세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거대한 틀이었다.

#팔 한쪽이 없던 아이

박대성 화백이 네 살 때였던 1949년, 경북 청도에서 한의사를 하던 아버지가 ‘반동 지주’로 지목되면서 빨치산이 휘두른 낮에 부모를 잃었다. 이때 그의 왼팔 팔꿈치 아래도 잘려나갔다. 이것이 그가 ‘왼손 없는 無學의 화가’라 불리는 이유다. 그렇다면 팔 한쪽이 없어 놀림받던 아이는 어쩌다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의 말에 따르면 친척들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어릴 때 살던 친척 집에서 제사를 많이 모셨다. 1년에 열 몇 번씩 제사가 있었는데, 머리맡에 병풍도 서 있고, 지방 쓰던 필기구도 있었다. 지방 쓰려고 오려놓은 종이에 병풍 그림을 흉내 냈더니 친척 어른께서 ‘우리 대성이가 그림에 소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다. 보통은 지방 쓰는 종

이에 애가 낙서를 해놓으면 99% 타박하지 않겠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부모도 없고 팔도 없으니, 기죽지 말란 의미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날 화가로 이끌었다.”

중학교를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지 않은 그는 제대로 된 그림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병풍부터 수묵화까지 뭐든 따라 그리는 것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산과 들을 오가며 나뭇짐을 하고 찻양을 먹이면서 눈에 보이는 풍경들을 그림으로 옮겼다. 대자연의 섭리가 그를 완전한 기초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가 열여덟이 되던 해에는 친척 어른의 소개로 호랑이 그림 대가인 서정묵 선생께 그림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박대성 화백은 “대학에는 고수가 한두 명밖에 없지만, 나는 학교에 속해있지 않아 모든 고수한테 배울 수 있었다.”며 “학교에 가지 않은 게 축복이었다.”고 말했다.



박대성 화백

#'불'같은 화가 박대성

박대성 화백은 미술대전 입선 후에도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중국·대만·미국·인도·터키·이탈리아 등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다녔다. 1994년에는 휴먼 미국으로 떠났다. 63빌딩 등 유명 건축물에 그림이 걸리면서 작품 요청이 밀려들 때였다. 그는 90년대 초 현대 미술의 실체를 알고자 했다. ‘현



박대성 화백

대 미술이 뭐냐고 묻는 그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현대미술의 메카인 뉴욕 소호로 날아갔다. 김환기를 비롯해 많은 화가들이 다녀간 학원 수채반에 등록했다가, 학원을 두 번 나가보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날은 선생이 시연하고, 둘째 날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다. 나는 먹과 붓만 가져갔다. 선생이 내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엑셀러트’하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붓과 먹을 보고 ‘도대체 이 브러시와 잉크가 뭐냐고 묻는다. 그때 알았다. 현대 미술이란 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잘해내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게 현대 미술 최고의 도구는 필묵이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공간은 뉴욕이 아니라 경주란 생각이 머리를 쳤다. 이 좋은 걸 눈앞에 놔두고 헤매고 있었다. ‘모던’이란 게 이미 우리한테 있는데, 영어로 말하니 다른 대단한 게 있나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다시 경주로 떠났다. 그에게는 신라가 남겨놓은 문화유산이야말로 모던 중 모던이었다. 그중에서도 정수가 불국사라고 했다. 불국사에 비가 오고 나면 백운교와 청운교 사이 쌍무지개가 보인다. 정월 대보름 대웅전에 서면 석가탑과 다보탑 사이에 보름달이 뜬다. 그는 불국사에서 1년을 기거하며 그림을 그렸다.

“내가 성질이 좀 뜨겁다. 공항에서 내려 바로 불국사로 갔다. 방을 달라고 하니 어렵다고 했다. ‘뉴욕에서 잠도 안 자고 여기로 바로 왔는데, 방을 내줘야 한다고 우겼다.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았다. 그림을 위해서라면 체면 차리는 일이 없었다. 대중 회의 끝에 불국사에 내 방 한 칸이 마련됐다. 11월의 불국사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밤새 병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화장실에 들락거리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어린아이가 소풍을 앞두고 그러는 것처럼!”

#몸이 불편한 팔자는 인생의 보너스

박 화백은 불편한 손을 원망해 본 적 없냐는 물음에 “몸이 불편한 팔자를 타고난 게 내 인생의 보너스”라고 답했다. 몸이 불편하면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고 세상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장애가 중증일수록 하느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차

피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화백은 요즘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냉수마찰을 하고 1시간씩 묵주 기도를 드린다. 오랜 기간 불국사를 그려온 그는 사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다. 그의 작업실 곳곳에는 십자가와 함께 성서가 놓여 있다. 2시간씩 글씨 쓰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그는 글씨에서 모든 내공이 생겨난다고 믿는다.

#2022 한국미술주간, 그 중심에 선 화백



윤범모 관장

박대성 화백은 지난 11월 3일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2022한국미술주간’ 행사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국립현대미술관(MMCA), 미국 다펜스대와 공동으로 3~6일 미국에서 ‘2022 한국 미술주간’을 개최했다. MMCA는 ‘한국미술주간’의 첫 행사로 3일 다펜스대 후드미술관에서 박대성 화백의 작품세계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다. 후드미술관의 럭셔리시리즈 ‘앨런 루트 현대미술 강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강연의 연사로는 윤범모 관장이 직접 나섰다. 윤 관장은 최근 한 컬럼을 통해 박 화백에 대해 이렇게 썼다.

“소산은 6·25전쟁 시기에 팔 하나를 잃었다. 그같은 역경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신체적 장애를 딛고 일어서 것은 젊은 세대에게 분명 귀감이다. 그는 붓을 주먹 쥐고 잡는다. 그리고 손목을 움직이는 대신 팔뚝을 움직이면서 그린다. 이를 통해 필획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붓끝으로 옮기고 있다. 기운생동의 경지라 할 수 있다. 붓 하나로 세상과 대결하고 있다.”

박대성 화백은 자신의 작품이 서양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진정성’ 덕분인 것 같다고 한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많은 화우가 존재감 없이 돌아오는 이유는 우리 걸 놓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음악,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이유는 모르지만 행복해진다. 인류를 두근거리게 하는 게 결국 예술 아닐까. 작품이 가장 잘 나올 때, 그간의 고통을 다 상쇄하는, 나만 아는 희열을 마주할 때. 나는 그럴 때 가장 두근거린다. 그 맛 때문에 내가 아직도 붓을 못 놓는다. 나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루저 중의 루저’였다. 그 부족함이 내겐 강점이었다. 어려움 없이 한 일은 들여다봤을 때 취할 게 없다. 그걸 딛고 이기려고 발버둥치면서 인간은 성장한다. 그렇게 나의 세계도 구축됐다.”

글 - 고은성 기자 ges0188@sungkyul.ac.kr

사진 - 영상미디어, 한겨레, 가나아트, 대한경제, 서울문화투데이

[참조] 조선일보, 대한경제

기자칼럼

나만의 색다른 조합을 찾아서



노하은 기자

최근 한 분야에 국한된 것보다는 여러 종류를 하나로 합쳐 색다르게 과제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융합’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음식을 먹을 때도 사람들은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와 치킨, 매운 라면과 짜장 라면 등 두 가지 음식을 합쳐서 색다른 맛을 즐긴다. 여러 가지를 합쳤을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가 대두된 것이다.

4살 어린 동생과 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놀란 경험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반 친구들이랑 모든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과목에 맞춰서 반을 이동해 수업을 듣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능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과목을 선택해서 하나만 볼 수 있고, 수학과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확률과 통계, 미적분 등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난 후 놀

람과 동시에 부러움을 느꼈다.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이해하기도 더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택과목제 도입 후, 학생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아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현재 보건과 환경, 심리학 등 개별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순회 교사가 담당하며 배움의 폭을 넓히고 있다.

융합형 사고와 교육에 맞춰 이번 학기에는 나도 내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기로 다짐했다. 평소 교양 과목으로 내가 좋아하는 철학 관련 과목이나 인문학 관련 과목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짐대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고 배울 생각조차 없었던 파이썬 과목을 수강하게 됐다. 처음에는 새로운 과목을 배우게 됐다는 생각에 기대하기도 설레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코딩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어려움을 느꼈고,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은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적절히 해내는 모습에 주눅 들기도 했다. 그러나 도전한 김에 최선을 다하지는 태도를 갖다 보니 점점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고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에 느낀 감

정은 무엇보다도 달콤했다.

교육부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학문을 배우다 보면, 한 분야로는 그 학문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다양한 학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연한 사고를 하면 이해도도 높아지고 색다른 접근 방식에 흥미도 높아질 수 있다. 그동안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2023년에는 배워보지 않았던 분야나 경험해보지 않았던 취미 등 색다른 것을 해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낯선 것에 도전한다는 것이 부담돼 꺼려질 수 있지만, 삶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글 - 노하은 기자 dmsu7226@sungkyul.ac.kr

체험에세이

나의 대학 생활



박미경 기자

필자는 20학번으로 코로나 학번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대학 생활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 3학년이 돼서야 오프라인 수업을 듣기 시작했으며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MT도 올해 처음 가봤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대학을 즐겨보고자 선택한 것이 바로 교내 근로였다. 교내 행정부서에서 근로 학생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정말 간단하게는 문서를 복사하는 방법에서부터 통성명 후 예의 바르게 전화를 받는 것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추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법한 것들을 배웠다. 하지만 근로를 하면서 모든 것이 좋았나

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다. 우선 1교시보다 이른 시간에 등교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필자는 외부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 준비를 하는 것이 룸메이트에게 민폐일뿐더러 일찍 자야 했기 때문에 눈치도 보였다. 또, 걸려 오는 전화를 받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다. 단순히 나에게 온 사적인 전화가 아니라 업무라는 공적인 이유로 부서 선생님들을 찾는 전화였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전화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들어 전달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근로 초반에는 내 자리 전화기가 울리면 심장이 빠르게 뛰곤 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부모님의 곁을 떠나 혼자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것, 직장인들 사이에서 근로를 하는 것 등 여러 방면에서 어색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나를 많이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주위 사

람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수업을 끝내고 출근하면 점심은 먹었는지 늘 물어봐 주시는 과장님과 실수해도 괜찮다며 수습해주는 부서 선생님들, 늘 내 근로 시간 표에 맞춰서 약속을 잡는 친구들까지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 덕분에 항상 힘을 낼 수 있다. 벌써 나의 첫 번째 대면 개강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소소하지만 착실하게 살아온 일 년을 돌아보며 이번 대학 생활은 소중한 사람들을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2022년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다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글 - 박미경 기자 qkrainud0827@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어느덧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툼한 겨울옷을 꺼내 추운 날씨에 대비하고 있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두툼한 겨울옷뿐만 아니라 수족냉증을 극복하기 위해 장갑과 수면양말을 착용하며 집에서는 꼭! 전기장판을 틀어두고 이불 속에서 굴을 까먹는다.

하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따뜻하게 보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저소득층이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적정수준의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이라 한다. 더욱 정확하게는 낮은 소득과 에너지 효율에 비해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가진 주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에너지복지지를 시행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앞세우며 에너지빈곤층의 건강한 생활과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복지의 유형으로는 연료지원과 에너지

요금 할인, 효율개선보급사업 등이 있다.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5년 기준)의 한랭 질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이 없는 무직과 노숙인, 높은 연령층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외 질환 발생자가 다수였지만 실내도 만만치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71.4%와 65세 이상 고령층의 23.3%가 집에서 질환이 발생했다. 즉 아이들과 노인에게 ‘집’이란 보금자리가 아닌 추위에 맞서야 할 공간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먼저 연탄 봉사에 대해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난방용품 기부와 도시락 배달 봉사도 있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후원과 기부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다. 혹시 당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는가? 있다면 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는가? 이 모든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다른 질문을 하겠다.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전날 아이의 양말에 선물을 넣고 간다. 우리도 한 명의 산타클로스가 될 수 있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손길을 선물한다면 그 어떤 양말보다 값질 것이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du1596@sungkyul.ac.kr

주간사설

옥스브리지와 하버드, 그리고 성결대



김희선 교수
영어영문학과

우리 대학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0년 전 1962년 9월에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되었다. 설립자인 고(故) 김응조 목사는 일제 강점기에 학생운동가로 삼일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면서 옥고를 치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바라보며 “여기서 신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기도를 기억해내었다고 한다. 김응조 목사의 집에서 50명의 신입생으로 시작한 작은 신학교가 지금의 약 6천 명의 종합대학이 되기까지 60년 동안 우리 대학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이 된 지금도 우리 대학의 이념은 설립 당시의 철학인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양성’이다.

나는 종종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신학대학으로 출발한 세계 여러 대학의 예들을 들어

주곤 한다. 주로 예를 드는 대학은 일명 ‘옥스브리지’(Oxbridge)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옥스퍼드(Oxford)와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 그리고 하버드(Harvard) 대학을 포함한 미국 신대륙 초기의 대학들이다. 그들은 모두 긴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는 세계 초일류대학들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1096년에 개교하여 올해로 926년의 역사를 지닌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서 ‘주님은 나의 빛’(The Lord is my Light)이라는 학교 표어를 사용한다. 두 번째 오래된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은 옥스퍼드 출신 신학자들이 세운 학교로서, 1209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813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로부터 빛과 성배를’(From here, light and sacred draughts)이라는 표어를 쓰고 있다. 당시 대학은 교회법의 적용을 받고 가톨릭의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대학교육의 목적은 중세 서구 유럽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가톨릭 성직자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물론 16세기에 헨리 8세가 성공회를 국교로 삼은 이래 지금은 다양한 전공의 대형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옥스브리지는 보수적 신앙과 전통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계각층의 강

한 영향력 있는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학교로 유명하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은 1636년 영국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존 하버드(John Harvard) 목사에 의해 세워져 38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최초의 대학이다. 하버드 대학은 영국의 약 만7천 명의 청교도들이 종교적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 양성을 위해 최초로 설립되었다. 당시 아메리카 북동부 지역에 건설된 식민지 공동체의 목적은 영국에서 종교적 탄압에 시달리던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착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농장(플랜테이션, plantation) 건설과 함께 종교적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었다. 하버드 대학이 제일 먼저 세워졌고 그 뒤를 이어 예일(1701년), 프린스턴(1746년) 대학 등 일명 ‘아이비리그’(Ivy League)로 일컬어지는 미국 동부권 최고 명문대학 대부분이 이 무렵에 생겼다. 하버드 대학은 ‘베리타스’(Veritas), 즉 ‘진리’(Truth)를 학교 모토로 삼으며, 예일대는 ‘빛과 진리’(Light

and Truth)를, 컬럼비아대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In Thy light shall we see light)라는 모토를 주된 대학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렇듯 미국이 국가로서 독립을 하기도 전에 종교적 사명을 지닌 대학들을 최우선으로 세웠음을 볼 때, 그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줄 종교적 지도자의 양성과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대학은 개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3일 김응조 목사의 생애를 바탕으로 창작 뮤지컬 <영암 김응조>를 제작하여 선보였다. 많은 이들이 성결대학의 설립배경과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큰 감동을 받았다. 성결대의 60년이 옥스브리지와 하버드의 수백 년의 역사와 비견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양성’이라는 대학이념, 즉 옥스브리지와 하버드 대학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교육철학을 지녔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나는 종종 이점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며 강조한다. 우리는 성결대 학교의 설립이념에 대해 자부심을 지녀야 하고 마땅히 그럴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이다.

교수칼럼

“어, 이게 되네?”



남수연 교수
국제개발협력학과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는 지역개발의 이론과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한 학과이다. 그런 만큼 학생들은 국제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개발의 실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

실무는 배운 것을 직접 몸을 써서 적용해 봐야 필요한 상황에서 꺼내 쓸 수 있다. 내가 강의하는 지역개발 수업에서는 인근 지역사회나 캠퍼스 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배운 것을 적용해보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그런 수업이 두 과목 있었다. ‘지역사회개발론’과 ‘지역조사방법론’이다. 한 학기가 거의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 교과목 내용과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두 과목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다.

‘지역사회개발론’은 1학년 학생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지역공동체가 지리적 범위로 묶인 집단일 뿐 아니라, 지역의 삶의 질을 주도적으로 개선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적 역량도 의미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 역량을 활용해 지역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뒤집어 보는 시선’

이 필요하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자원이 부족하기 마련인 개발도상국 지역공동체에는 특히 필요한 접근이다.

이론을 학습한 후, 학생들은 우리 학과를 대상으로 이미 가진 자원을 찾아보는 연습을 했다. 학생들은 먼저 자신들이 그리고는 학과의 미래상을 비전 한 문장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학과와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비전 실현에 도움이 될 자원을 찾아 지도로 그렸다. 이 커뮤니티 매핑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학과가 지닌 잠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지역조사방법론’은 2학년 과목으로 설계되었지만 수강생 중에는 3, 4학년 학생들도 제법 포진해 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신뢰도와 조사 타당성, 신뢰수준과 신뢰구간, 중심집중치와 표준편차, 질적·양적 조사와 코딩 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진행했다. ‘뭐...라시는지...?’. 용어와 개념 자체가 학생들이 한 번 듣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웠다.

학기 후반부에는 더 큰 난관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어도 이전에는 앞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을 떠들어댈지언정 학생들은 그저 ‘관객’이었다. 팔짱을 끼고 앉은 안락함과 타인 시선으로부터의 안전함, 그리고 이로 인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구르고 땀 차례가 되었다. 일단 학생들은 질적·양적 조사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분석의 기본기를 다졌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았다.

이제 학생들은 조사방법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매주 조별로 머리를 맞대야 했다. 조사 대상은 학교가 위치한 안양8동 중 상록재개발지구 건너편 지역이었다. 조사 주제를 정하기 위해 지도를 확대하여 이리저리 뜯어보는 것부터 시작했다. 주제는 어떻게든 정했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지역조사를 직접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꽤 컸던 모양이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당혹스러움이 읽혔다. 나는 조별로 모인 학생들 사이를 오가느라 분주했고, 학생들도 조사 내용에 익숙해지는 동안 삼 주에 걸친 단계별 조사 계획은 완성이 되어갔다.

마침내 지역조사를 나가는 날이었다. 학생들이 조사를 시작한 지 삼십 분 남짓 지났을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후두둑’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이 시간에...’ 입술을 깨물었다. 일단 들어오라는 나의 공지를 받고 강의실로 들어서는 학생 몇 명의 손에 색색의 예쁜 우산이 들려있었다. 간이인터뷰에 응해주신 지역 상인분께서 성결대학교 학생들 비 맞지 말라고 같이 조사하던 학생들 손에 일일이 우산을 쥐어주시는 거란다. 우리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의와 존중을 갖추어 지역분들께 배우고 올 것을 조사 시작 전에 함께 다짐했기에, 우리 학생들을 아들, 딸처럼 품어주시는 지역분들께 감사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지만 학생들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초등학교 등교 보행환경을 조사하

기 위해 아침 일찍 학교 앞에서 학교 교감 선생님과 관리 담당 선생님의 인터뷰를 포함하여 사전 조사를 진행한 조도 있었고, 빗속에서도 우산과 비웃으로 무장한 채 계획한 조사를 마무리한 조도 있었다. 예정보다 일찍 강의실로 들어온 학생들은 조별 FGI를 그 자리에서 진행해 관찰 결과를 데이터화하고, 사진과 간이인터뷰 결과도 모아 능숙하게 자료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 어렵던 걸 함께 배워낸 동료들간 추미새가 오가는 것도 들렸다. 학생들은, 너무 잘하고 있었다. 내가 더 손댈 것이 없었다.

며칠 전, 한 학생이 씩씩하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수업 내용이 어렵긴 한데 따라가다 보면 “어, 이게 되네?” 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품이 더 들면서도 학생들에게 직접 조사를 하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앞서 언급했듯 직접 해보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그보다,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학생들에게 있다는 믿음이 더 큰 이유였다.

서로 끌어주고 보듬어주는 동료 관계, 학과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 스스로에 대한 개별적, 집합적 확신, 그리고 질적·양적 조사쯤 ‘쓰으’ 정복해버리는 스마트함. 그건 1학년 학생들이 학과 자원 매핑했을 때도 언급되었던,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역량이었다. 난 그걸 건드리기만 했다. 한 학기 잘 따라와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독자 한 스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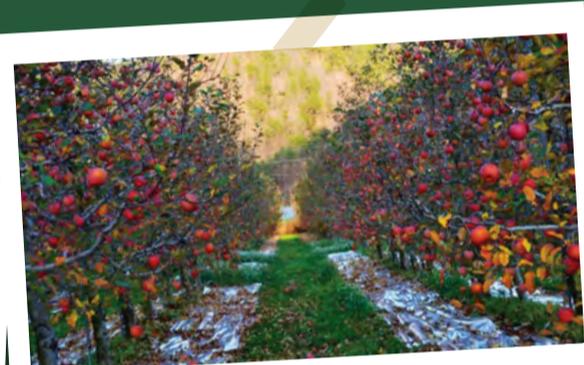
393호에 독자 한 스푼이 돌아왔다!
주제는 바로 <이번 학기 베스트 컷!>
학우들의 사진을 살펴보자.



사복, 동물 씨씨 - 얼마 전 다녀온 덕수궁
황선혜(동물 20) 학우



경치가 아름다운 학정 앞
이정은(경영 20) 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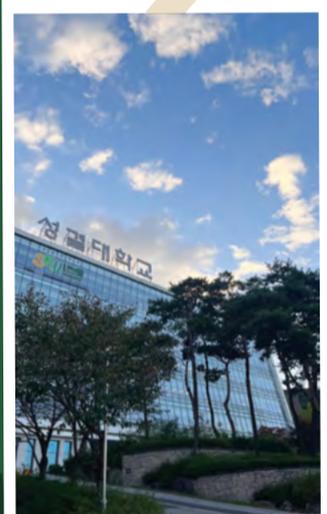
열매를 다 따 나무만 무성한 곳에 유일하게
사과나무만 열매가 풍성하게 달려있다.
채수민(경영 20) 학우



선진희(동물 20) 학우



정예달(국제 20) 학우



늦여름~초가을 학술정보관 풍경
김가영(체교 21) 학우



임정엽(사복 20) 학우



김선주(사복 19) 학우



유정원(동물 20) 학우